

	인도(뉴델리) 통상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 승 창 소장
		일 시	2023.11.

CEPA Insight

- 대기오염에 몸살 앓는 인도
- 인도 의료시장 동향 및 진출 방안

< 2023년 10월 기준 對 인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1,531,341천불	9.1%	599,590천불	14.9%	931,751천불
충남	157,900천불	2.6%	39,172천불	132.7%	118,727천불

※ 출처 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■ 대기오염에 몸살 앓는 인도

- 인도의 극심한 대기오염, 힌두교 축제 디왈리로 인하여 악화 예상
 -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로 앓고 있는 뉴델리에서 이번 주말 힌두교 최대 축제인 '디왈리'가 시작되면서 더욱 악화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. 인도 전역에서는 10일부터 닷새간 디왈리가 열리는데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꽃놀이가 예정되어있음. 전문가들은 장마 직후인 이 시기가 자연적으로도 공기가 정체되어있고 디왈리 불꽃놀이와 자동차 배기가스, 쓰레기 소각, 가정용 난방 연료 사용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봄.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일상적인 대기오염 발생원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.
 - 대기오염 정도는 미세먼지(PM10-지름 10 μ m 미만의 미세입자)와 초미세먼지(PM2.5-지름 2.5 μ m 미만의 미세입자), 일산화탄소, 이산화황, 이산화질소,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을 측정해 계산하는 대기질 지수(AQI)로 분석. 이 수치가 150을 넘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뉴델리에서는 이미 지난 3일부터 99를 넘어섰고 6일에는 500을 넘어서기도 함. 이로 인해 병원 응급실마다 소아 환자가 가득 찼고, 학교는 강제 휴교 중.

(출처:조선일보/2023.11.12)

■ 인도 의료 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

• 인도의 의료시장은 Make in India, PLI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 중이며 급증하는 수요 대비 수입 의존도 높아

- 인도의 의료기기 시장은 2022년 기준 110억 달러 규모, 이후 연평균 16.4%씩 성장하며 2030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의 확대가 예상. 인도의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는데, 2014년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'메이크 인 인디아(Make in India)' 정책에 의료기기를 주요 분야로 선정한 것이 주요.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 증가분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PLI(Production Linked Incentives: 생산 연계 인센티브) 제도에 의료기기도 포함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중.
- 인도의 의료기기 분야의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.37%의 성장세를 보이나, **수입 의존도가 70~80%**에 달하기 때문에 수급 격차가 큼. 수요 대비 저조한 인도의 의료기기 보급률은 국내외 제조업체들에 큰 기회로 작용.
- 인도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전 분야에 대해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 기구(CDSCO)의 인증이 필요. 의료기기 활용 시 위험도에 따라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신청 수수료 등이 상이함. CDSCO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위임장, 판매수권서, 적합진술서, 자유 판매증명서, 제조업허가증명서, ISO 13485 등의 다양한 서류를 구비해야함. 또한, 인도 내 수입업체 및 공식 대리인이 있어야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, 최종 승인까지 통상 6~9개월이 소요됨. **(출처:코트라 /2023.11.06)**

<의료기기(90189099) 관세율> (단위: %)					<의료기기 등급별 CDSCO 인증 수수료>				
구분	기본관세(BCD)	보건세(Health Cess)	통합부가세((IGST)	합계	구분	Class A	Class B	Class C	Class D
위험도						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함	잠재적 위험성이 있으나 낮음	인체에 삽입되거나 잠재적 위험성 높음	영구적 이식용 혹은 고도의 위험성
제품 예시						후두경, 수술용 드레싱, 교정용 브래킷 등	전기수술용 절단기, 장내주입펌프, 내시경경자	안과용 레이저, 보청기, 치과용 필러	이식형 제세동기, 망막 임플란트, 안구내렌즈(IOL)
CEPA 미적용	7.5	5	12	27.4	신청 수수료	제조공장 별: \$1,000 제품모델 별: \$50	제조공장 별: \$2,000 제품모델 별: \$1,000	제조공장 별: \$3,000 제품모델 별: \$1,500	제조공장 별: \$3,000 제품모델 별: \$1,500
CEPA 적용	0	5	12	18.16					
[자료: 인도 무역 포털(India Trade Portal)]					자료: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(CDSCO) 및 뉴델리무역관 종합				
<의료기기 관세율>					<의료기기 등급별 CDSCO 인증 수수료>				

■ 인도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한 진출방안 모색 필요

• 인도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함

- 의료기기 산업은 인구 증가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세계 인구수 1위인 인도에서 의료기기 산업은 대폭 성장할 수밖에 없음. 현재 인도 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장 규모와 수요를 자국 생산량이 뒷받침하지 못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.
- 그 중 한국은 對 인도 의료기기 수출국 7위이나, 올해 7월 기준 상위 수출국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50% 이상 수출이 증가하며 인도 수입 의료기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.
- 인도 정부는 자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PLI(생산연계인센티브) 제도 시행 및 의료기기 단지 육성 등 전폭적인 지원 중. **암·방사선 치료, 마취제, 임플란트, 심장 호흡기, 신장 치료** 등의 분야에 국내 생산량 매출액에 대한 5% 보조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,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도 좋은 진출 기회를 제공.
- 비교적 높은 관세와 복잡한 인증 절차는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만 최근 인도 내부에서도 높은 관세로 상승한 소비자 가격을 우려해 무역장벽 해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 회계연도 2023-24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인도 의료 기술 협회(MTal)가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2.5%로 인하 및 보건세 철폐를 촉구한 상황. 지난 4월 26일 인도 정부가 발표한 '2023 국가 의료기기 정책'의 골자도 규제 간소화에 있음. **(출처: 코트라 2023.11.06)**
- 인도의 의료시장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인도 1위 대국을 겨냥해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을 위해 필수적인 인증과정을 미리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. 끝.